


— 5월호 Vol.8 —

한동해 포럼 Newsletter

울독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2021. 5. 31





충.군.포. 그리고 일의 평화, 울독에서 유라시아까지



정진호 회장
(한동대학교 교수)

사랑하는 유원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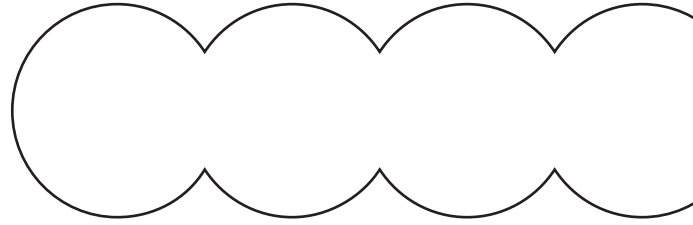
저희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총회를 작년 5월 1일에 하고, 6월 16일에 법인 등록을 하였으니 초록이 깊어가는 오뉴월에 기지개를 튼 셈입니다. 작년에 창립기념세미나를 울릉도와 독도에서 치르던 일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그래도 경주세미나를 비롯하여 큰 행사를 두번이나 치르고 귀한 회원님들을 75명 가량 확보하였으니, 신생 포럼으로서는 무력무력 자란 셈입니다. 창립 총회를 치르고 2~3년이 지나도 등록도 못하고 홈페이지도 못만든 단체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럼은 남과 북 디아스포라와의 3자연대로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는 21세기 한동해 시대의 꿈과 비전을 지니고 출범하였습니다.

“울독에서 유라시아까지” 어찌 보면 조금은 황당해 보이는 비전인듯 하나, 이제 곧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세대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할 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가 빛의 속도로 연결되어 가상 현실 속에서 현실이 지배받는 유비쿼터스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20세기 벽두를 열었던 과학계의 가장 큰 두 발견인 양자론과 상대론은 인류의 사고의 지평을 어마어마하게 확장해 주었습니다. 양자론이 아원자 상태까지 볼 수 있는 미시세계의 눈을 열었다면 상대론은 무한우주를 향한 거시세계로 의식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뉴턴역학이 시간 공간 물질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결정론의 세계였다면 이제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현상 속에서 시공간 물질이 뒤섞이는 비결정론의 세계가 열리면서 새로운 사고의 틀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수많은 반도체 기술, 전자기술, 우주기술,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였고, 심지어는 철학과 경제학 심리학 인지과학 등의 일반학문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2차 산업혁명이 의식주의 물질문명을 대중화시킨 전기혁명, 자동화 혁명이었다면, 20세기 후반의 3차산업혁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정보통신혁명이라 불리는 온라인 세계가 시작되면서 손 안에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삶의 커다란 변화를 체험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변화는 그 이전의 변화들을 다 합친 것 보다 더 큰 충격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는 2차(오프라인 세상)와 3차(온라인 세상)가 만나서 뒤섞이는 혼재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되어 있던 3차혁명시대에는 틈틈히 가상 현실에 빠지더라도 다시 현실로 되돌아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일상의 현실 속에 수많은 가상현실이 뒤섞여 구동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가상공간인지 구분이 가지않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역사를 들여다보고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기재(mechanism)가 있습니다.

-BLTS (Business-Law-Technology-Society) : 사회적 구동요인

-ABCD (AI-Blockchain-Cloud computing-big Data) : 기술적 구동요인

이 영향권 속에서 남북의 평화와 상생의 역사도, 우리 포럼의 역사도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기술이나 그 의미를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미 거역할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물살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이 마뜩잖아서 거부하고 폴더폰을 고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되어 왔듯이 말입니다.



얼마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남북경협사업을 구상하며 남북미간의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우리 포럼의 입장에서도 무척 그 결과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분단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미국의 입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더불어 백신과 반도체가 주요 협상 이슈가 된 것을 지켜보면서,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저서 <총.군.쇠>가 생각났습니다. 제라드는 인류 문명의 역사를 주도해온 세 가지 요인을 총(무기), 군(전염병), 쇠(경제력)이라고 본 것이지요. 쇠 즉 철은 역사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을 상징해왔습니다. 로마시대부터 대영제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강대국이 철강생산을 통해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지요.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나라도 1972년에 포항제철에서 일관제철체계를 갖추고 철강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철과 함께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총 (국방) : 북핵문제, 미사일 가이드라인 폐지, 한국전 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참여

군 (보건) : 한국군 백신 증여, 한미백신생산 파트너십

쇠 (경제) :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공장의 미국 투자

이 세 가지 요소는 결국 한 나라의 자주적 평화를 결정하는 안보요인으로 수렴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스스로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군.쇠의 3가지를 자주적으로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자주국방, 자주백신, 자주경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끝없이 강대국에게 목줄을 죄인 채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 엄혹한 국제사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라드 다이아몬드가 보지 못한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지닌 연합의 힘이요 민족혼 바로 얼입니다.

얼 (연합) : 하나됨의 함성과 갈망

그것은 평화를 향한 우리 민족의 갈망입니다. 하나가 되고픈 민족의 소원입니다. 폭력에 대항하는 끈질긴 저항정신입니다. 수 많은 외세의 침략과 폭압과 독재와 탄압 속에서도 저항운동으로 일어났던 의병활동과 독립운동가들이 자신과 가족의 온 생을 드려 헌신했던 그 정신이며, 3.1운동과 6.10만세운동과 4.19 정신과 5.18항쟁과 6월항쟁과 마침내 촛불 정신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일어나 만세를 외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함성입니다. 그 얼이 남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했고 국가적 위기시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마침내 K-방역에서 보여준 온 국민의 단합된 모습이었고, 북에서는 일심단결 주체사상으로 나타나 세계 패권국가 미국에 맞서 핵무기까지 개발하게 한 추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롬’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입니다. 이것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인사말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안녕하세요?’ 입니다. 굿 모닝, 조상하오, 봉 주르 같은 의미 보다 훨씬 깊은 인사 법입니다. 이 뜻은 단순히 서양인들이 자주쓰는 평화(peace)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적어도 네 가지의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peace)요, 둘째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상태(health)요, 셋째는 가난과 굶주림이 없는 상태(wealth)이며 마지막으로 나눔과 불화 그리고 죽음이 없는 상태(unity)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살롬하냐? 안녕하냐? 라는 질문에는 지난 밤 너를 위협한 어떤 폭력이 없었느냐? 어디 아프지는 않느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냐? 누구랑 싸워서 갈라 서지는 않았느냐? 라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의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롬 즉 안녕이 깨지는 마지막 상태가 바로 육체와 영혼의 분리, 즉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육신과 혼백()의 분리라고 보았고 그래서 육신이 죽어도 혼은 하늘로 백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안녕은 곧 분리에 대한 저항정신이기도 하였고, 그래서 우리 겨레의 민족 혼에는 하나되기를 갈망하는 민족의 열이 서려있는 것입니다. 그 열이 발휘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오래 전 출간했던 <루카스 이야기>라는 책에 썼던 시 하나 옮겨 봅니다.

겨레

한 겨레로 태어났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의 어머니와

먼 친척벌이 된다는 것인가?

우리의 노란 얼굴색이 납작한 콧잔등이 서로 닮았다는

뜻인가?

우리 아이들의 엉덩이 반점이 겨레를 말해 주는가?

겨레는 그런 뜻이 아니다.

억울한 헤어짐으로 가슴 애이뒀 아파할 때

재회의 통곡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릴 때

구수한 된장국으로 주름진 미소가 마주볼 때

놀이 패 어울림의 장단으로 어깨춤이 절로 날 때

골 하나의 통쾌함으로 반도 산천이 메아리칠 때

하나가 되고픈 간절함으로 숨죽여 흐느껴 기도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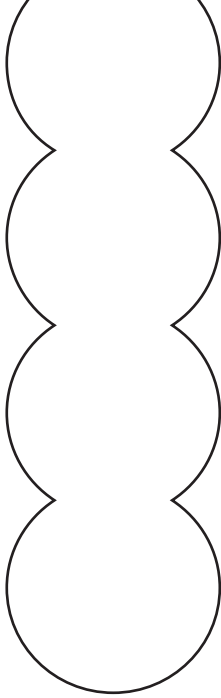
우리는 겨레가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그 열을 발휘하여 다시한번 남북이 연합하여 민족자율적 국방과 보건과 경제를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화와 연합을 사랑하는 우리 겨레의 열의 정신이 울독에서 유라시아까지 퍼져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포럼은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지켜보아 주십시오. 아직은 서툰 걸음 처럼 보일지라도 조만간 비상하고 올라설 날이 올 것입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봅니다. 부족했던 것을 점검하고 또 다른 변신과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약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포럼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창립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월 31일 (사)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창립 1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온/오프라인 병행합니다. 강의 및 회의를 위해 꼭 오셔야 하는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는 온라인 줌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 회비 납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할한 포럼 운영을 위해 회비를 납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기재부 산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 수속을 밟을 예정입니다)

1) 1만원 /월, 2) 12만원 /년, 또는 3) 자유기부금 (월 _____원)

송금 계좌 : 국민은행 (사단법인유라시아원이스트씨포럼) 821701-01-616477

한 마음으로 동참해주세요. 물질적 후원과 헌신이 있어야 비로소 포럼의 한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즉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경제활동의 연합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됨의 얼을 발휘해 주십시오. 그래서 포럼 사단법인 등록일 1주년이 되는 6월 16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을 진정한 창립회원으로 모실 것입니다.

이 모아진 회비 또는 후원금으로 올해는 <울독 세미나>와 <울독 TV>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기지개를 켜지만, 본격적으로 우리 포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울독 세미나를 통해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아지면 울독 출판에서 책자도 발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연합을 가로막는 많은 오해들을 풀기 위해 북에서 온 제자 한 사람과 더불어 울독TV를 통해 북을 이해하고 남에서 북으로 길을 내고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들을 열어갈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홈페이지를)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적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함께해 주심에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창립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무한한 안녕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 회장 정진호 올림



'열정' '롤모델' '소녀감성'으로 열어가는 특수 교단



강경숙 교수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열정’ ‘롤모델’ ‘소녀감성’….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제 제자들이 늘 저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열정과 롤모델까지는 좋았는데, 소녀감성은 쫘! 가끔 폰수 없이 화들짝 웃어대고, 쉽게 감동받아 울기를 자주 해서 소녀감성이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후 30년 가까이 특수교육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원포 회원분들에게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량이 살짝 있더라도 이해해주십시오. 아직 소녀니까요. 호호호

저는 전북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에서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되기 전에는 교육부 공채 3기로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근무했고, 그 전에 세이브더칠드런(NGO) 국제결연담당자,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쳤는데 이런 경험이 제게는 큰 자원이 되어 줍니다.

덕분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교육청 자문위원 및 교육정책 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은 제게 운명과도 같습니다. 고3때 세상에 태어나 단 한번 살다 가는데,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특수교육을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이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외에 달리 할 일을 찾지 못했던 이유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애 분야 외에도, 어려서 부유하지 못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실은 저도 모르게 그 쪽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제게는 늘 간절한 마음과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소위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꿈을 이뤘어요. 가치 있는 일을 가슴에 품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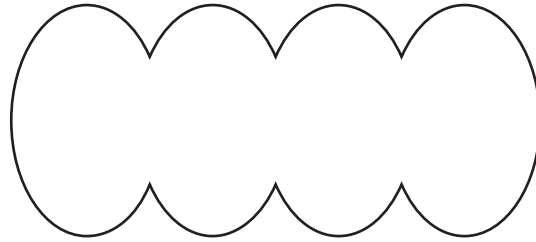
그러다 보니, 2019년에 제자들이 추천하고 30인 이상이 국민추천 형식을 통해 4년제 대학 교원 중 유일하게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 ‘옥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추천위 심사와 실사, 학교 홈페이지 공개검증을 거쳐 교육부 공적심사위에서 훈격을 결정하고, 행안부 훈포장 추천으로 진행되었지요. 제자들에게 무척 고맙고, 저의 애정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그들이 곁에 있어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이 훈장이 제자들이 선생에게 준 훈장이라고 생각하니 더 자랑스럽습니다.

외부 위원회 활동이나 연구활동을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저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해주고 격려해주는 제자들 덕에 힘이 납니다. 인생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남는 것인데, 이 스승상 안에는 제 제자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다른 상도 아닌 “스승상”을 받는다는 것이 더없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교단에서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 연구와 학술 활동, 현장성을 중시한 강의와 학생지도를 강조하곤 합니다. 특수교육은 실제 적용해야 할 현장이 있는 응용 학문이라 이론으로 물론 단단히 준비되어야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생동감있는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도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가르쳤던 현장의 특수교사 출신의 교수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교육정책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성있게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며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장애교육, 복지, 재활 등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 장애관련 독서 및 영화감상문, 조별 지식검색 프로젝트를 하도록 지도하면서 장애인권 가치를 확산하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영화제 등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과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일을 하면서, 우리 학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인근 소재 '미디어트' 영상미디어 센터와 함께 장애인영화제를 개최하도록 돕곤 합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화제 출품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관람하러 오는 분들에게 장애인식개선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휴먼에이드'의 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기사 쓰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의 사명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장애인 미디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여 장애학생 통합교육 가치 확산, 일반인과 장애인의 직접 교류 증진,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권 확대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 왔던 사회 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5년 전 정서심리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단법인 ‘좋은 의자’를 창립해서 ‘사람돌봄’ 원칙을 확산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조우네 마음약국과 함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 소재 가정 없는 청소년을 보살피고 있는 “뜰레랑스” 기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활동과 ‘약자의 눈’이라는 국회 활동에 관여하면서 장애 재개념화,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의 동료지원가 지원 활동을 제안하는 등의 주제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좀더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교육안전망 속에서 함께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에 저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갔으면 합니다. 함께 누리고 잘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사람들만 누리고 차별한다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협력과 배려의 가치를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인생 후배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전수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원포 회원이 되었으니, 앞으로 남과 북의 통일문제와 상생과 연합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울독의 시대정신과 역사 의식을 담아내는 의미있는 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 정진호 교수님의 역사소설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의 북콘서트를 제안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도 직접 함께 가서 섬기고도 싶습니다. 북한에도 우리가 함께 돌보아야 할 장애인과 장애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터이니깐요.

●●●●

울릉도 와접기행



임진우 사장
((주)정림건축
디자인기술통합연구소 책임임원)

임진우 사장

대한민국의 대표 건축설계 회사인 (주)정림건축에서 30여년 간 일하며 수석디자이너, 설계 본부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주)정림건축에서 디자인기술통합연구소 책임임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직 중 설계한 작품으로는 한국가스공사사옥,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이화여대서울병원 등이 있으며. 건축 문화대상, 건축가협회상 등 다수수상경력이 있고. 저서로는 <건축가가 말하는 건축가>와 에세이 집 <걷다, 느끼다, 그리다> 등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이외에 취미로 시작한 펜 수채화로 수차례의 개인전을 가진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 공식 캘린더를 제작하는데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 정림건축은 2002~2003년에 평양소재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계한 기업으로 평소에 남북경협사업과 남북건축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대표이사 재직 중인 2018년 (주) 정림건축 내에 남북경협TFT를 편성하여 사내외 남북경협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건축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용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여 가장 선도적으로 남북경협사업을 준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울독>뉴스레터를 통해 울릉도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글과 그림을 신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사)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에 세상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아직도 우리는 지인들과의 편한 식사자리도 기피해야하고 답답하지만 마스크 속에서 입을 다물고 지내야 한다. 주변을 돌아보면 상상조차 어려웠던 코로나시대에 적응해나가느라 모두 힘들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하늘길이 묶인 상태에서 어디라도 쉼, 바람이라도 쐬러 다녀와야겠다는 지인이 계시다면 울릉도를 가보시라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울릉도 여행은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다. 척박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은 감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그럴수록 감성을 더 필요로 한다. 울릉도 화첩 기행을 통해 부디 많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감성이라는 여백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울릉도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신비의 섬이다. 제주가 자랑스러운 관광의 섬이라면 울릉은 이색적이고 비경으로 가득 차있는 신비의 섬으로 손색이 없다. 남해의 다도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즈넉한 풍경에 비해 이곳은 수평의 바다위에 깎아지른 듯 수직으로 곧추 서있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섬이라서 선상에서의 첫 인상은 다분히 초현실적이다. 용암분출로 이루어진 섬이지만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고 투박하고 거친 면모 때문에 야성미 넘치는 마초스타일의 강한 남자와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 상남자같은 울릉은 동해바다 한가운데서 오랜 세월동안 외롭게 강풍과 파도와 싸우며 우람한 모습으로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는 기특하고도 대견한 섬이다.





강릉 여객터미널에서 쾌속 여객선으로 출발하면 약 3시간 후 짬 이면 울릉군 저동항에 도착한다. 기다란 방파제 중간에 삐죽 솟아있는 저동 촛대암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시야에 먼저 포착된다. 오징어잡이 배들이 정박해 있는 평화로운 저동항의 풍경을 아우르며 서있는 촛대바위는 특별히 일출과 야경이 아름답다. 이 바위를 중심으로 갈매기 떼들이 날개를 흔들며 여행객들을 환영하며 어지럽게 비행한다. 아직 개발이 더디 진행되어 보존된 원시자연을 체험할 수도 있고 비록 덜 세련된 건축물들이지만 오래된 주거 군이 경사지에 중첩되어 남아있어 다행이다. SUV 차량을 빌려 섬을 일주하는 동안에 대책 없이 여기저기에서 불쑥불쑥 솟아나와 있는 봉우리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놀라움 그 자체다. 송곳봉이나 곰바위같이 하늘로 치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장엄한 자태에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간 거북바위나 코끼리바위, 삼선암같은 녀석들도 물 위에서 장관을 이루며 감동을 자아낸다.

차량이동을 위한 많은 터널, 좁다란 일방통행 길의 신호대기, 지그재그 도로 등, 온통 급경사인 섬을 활용한 도로망도 특이한 코스가 많다. 하지만 뜻 밖에 높은 산 위에도 평지가 있어 그 곳에 무릉도원처럼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이룬 곳도 있다. 바로 나리분지 관광지구로 하얀 꽃이 피어있는 넓은 명이나물 밭과 작은 교회건물의 조화가 특히 눈에 띈다.

태하항목 관광모노레일을 타고 산위로 올라가서 태하등대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의 10대 비경은 자연이 빚어낸 예술로 압권이다. 낙조와 함께 해안선과 중첩된 봉우리들이 만들어낸 비경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도동항 인근에 위치한 독도박물관 견학 후 케이블카를 이용, 독도전망대에 오르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독도를 볼 수 있다. 조감도를 보는 것처럼 성냥갑같이 생긴 작은 집들과 선착장, 넓은 바다위에 흰 선을 그으며 항해하는 여객선들이 장난감처럼 보인다.

섬 전체를 구석구석 돌아다녀보면 오랜 과거로부터 인간이 급경사의 가파른 지형을 어떻게 활용해왔고 거친 환경에 순응 혹은 극복해 왔는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극한의 자연에 도전한 인간의 오랜 역사가 축적되어있는 섬이다.

한 번 짬은 여객선에 탑승해서 바다위에서 조망하는 관광코스 체험도 해 볼 만 하다. 해수면 위에 가파르게 서있는 울릉도의 기암절벽을 다시 새로운 감동과 함께 스케치북이나 카메라에 담아낼 수 있다. 봄비는 승객들 사이에서 햇살 좋은 갑판 한편에 자리를 잡고 일행과 마시는 캔맥주는 상쾌한 바닷바람 속에 흥겨움을 더해준다. 해안을 일주하는 동안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행하며 곡예비행으로 즐거움을 선물해준 갈매기 떼들에게 보답으로 안주로 먹던 새우과자를 가끔씩 던져주는 일도 즐거운 체험으로 추억하게 될 것이다.

울릉도의 먹거리 기행도 입맛을 자극한다. 오징어와 호박엿은 일반인들에게도 이미 유명해졌지만 그 외에도 따개비 칼국수, 콩치물회, 홍합밥, 오징어내장탕과 심해에서만 잡힌다는 닭새우와 꽃새우도 별미다. 명이나물과 부지깽이 절임도 빠지면 섭섭하다.

2년 전 짬에 북동측 4km구간의 최종 터널공사가 완료되어 이제 울릉도는 차량으로 일주가 가능해졌다. 아직도 섬 여기저기에 터널을 뚫고 도로를 넓히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라 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동항 인근에는 소형비행기가 출항할 수 있도록 넓은 부지를 마련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사업이지만 경제성, 지형적 문제 등 여러 요인들이 겹쳐 사업이 계속 미루어지다가 구체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 2025년 공항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울릉도 간 이동 소요시간이 7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용도 50~60%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취항한다지만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와 편리함을 위해서 소중한 청정자연이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방문객들의 자연보호정신과 울릉군의 개발정책에 신중함이 더해져야 하겠다.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다시 강릉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나오며 뒤돌아보니 배웅 나온 촛대암이 시나브로 멀어지고 있다. 짧은 일정으로 머물다가지만 섬 주민들의 순박한 민심으로 금세 정이 들은 데다 귀한 볼거리, 먹거리를 선물해 준 고마운 섬이다. 울릉대는 처녀가슴처럼 울릉도의 체험과 추억은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작별의 마음은 애잔하다. 오후 늦은 햇살에 물비늘이 더욱 눈이 부시다. 아쉽지만 독도여행은 다음으로 기약한다. 굿바이. 울릉! 아일 비 백 순! (I'll be back soon!)

이 원고는 본 포럼 회원이신 정림건축 이명훈 부사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월의 소식

유원포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1) 유라시아 원이스트씨 포럼의 주소이전에 따라 정관개정이 있습니다. 홈 스페이스에서 새롭게 바뀐 정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1 남북경협포럼 사업계획 발표가 5월 31일 오후 1시~ 3시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남북 지자체간 우호도시 연합을 통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송영길 회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유원포 회원분들의 많은 축하와 격려를 기대합니다.

4) 이번 유원포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 유원포 비전제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길 (정진호 회장)
-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의 의미와 남북경협 및 유라시아 교통 물류 미래 전망 (류재영 위원)
- 개성공단 사례를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 (황우승 위원)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회원가입 안내

① 소개글



② 입회 신청서



③ 정관



* 재정상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